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심금을 울리는 편지

(Letters to the Heart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이 미 정

2013년 2월



# 심금을 울리는 편지

(Letters to the Heart · 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재 원

이 미 정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이미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13년 2월

# Letters to the Heart

Mi-jung Lee

(Supervised by Professor Jae-w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book was written by a pastor named Kim Beckham whose life has been about communication.

He found the most powerful, effective way of communicating love: letters, cards, notes, etc. Simple words on paper can help build a deep and joyous relationship with those who mean the most to you. He offers you this book as primer to teach you how to write simple, yet powerful letters to those you love.

It doesn't cost much time or money, but it will make a real difference in your relationships. Letters that share your love and pride in your loved ones will become a treasured keepsake more valuable than gold.

This book gives readers practical advice on how to write effective letters and cards. In addition, it guides them through the unique challenges involved in writing to young children, teenagers, spouse, and others they want to impact with their words of love and encouragement.

The author wants us to be emboldened to take-up pen or boot-up our computer and write something that will never be forgotten by those important to us as we read the chapters to come.

**심금을  
울리는 편지**



# 심금을 울리는 편지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을 아는 법

김 베컴



바바라, 제시카, 아만다에게,  
그대들의 아름다움, 지혜로움, 은혜로움은 이 책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준 편지들을 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 목차

머리말 .....	10
제1장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을 하는 법 .....	12
사랑을 전해야 하는 필요성과 글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제2장 가장 소중한 말 전하기 .....	24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이들에게 언제 무엇을 써야 하며 아이들과 짧은 시간에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제3장 십대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 .....	35
십대들에게 칭찬이 중요한 이유와 십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	
제4장 배우자에게 편지쓰기 .....	45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와 배우자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	
제5장 성인이 된 자녀에게 편지쓰기 .....	56
자녀들이 독립을 하여 집을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제6장 유산으로 남겨질 편지 .....	65
가족에게 유산으로 남겨질 편지를 쓰는 방법	
제7장 직원들에게 쓰는 편지 .....	71
직원들과 동료들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장에서 동기를 부여해주는 글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	
제8장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	77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방법	

제9장 또 한 가지 시도 .....83  
    짧은 글이 어떻게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보여주는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  
참고문헌 .....86

## 머리말

나는 소통의 삶을 살아왔다. 삼십 년이 넘는 동안, 마음에서 우리나라 생각들을 내 얘기를 듣거나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의 가슴에 전달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소통능력은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 하나이다. 소통은 인생에서 가슴깊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전히 명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쓴 이유이다.

내 세대의 많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아버지의 행동과 가족 부양에 대한 헌신을 통해 아버지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러나 사랑표현을 말로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 글로도 결코 한 적이 없으셨다. 감사하게도, 인생의 끝 무렵에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자랑스럽다는 표현을 말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그 선물에 감사함을 느낀다. 하지만 내가 어린아이 혹은 십대였을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른이 되어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런 감정 표현을 듣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드렸을 것이다. 내 딸들만큼은 그러한 알 듯 모를 듯한 사랑을 겪지 않게 하리라 마음먹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해 주어서 기쁘고 흐뭇하다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편지들은 딸들에게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위에 쓴 단순한 글들 덕분에 두 딸과 각별한 기쁨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두 딸과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반응이 좋았는데 특히 남성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범하지만 강렬한 인상

을 남기는 편지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줄 입문서로써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분명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원히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심금을 울리는 편지”를 써보자.

제 1 장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을 하는 법

“난 아빠가 싫어.” 나는 내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던 걸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당시 한창 번창하고 있던 교회에서 목사일로 바빴던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면서 교회신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친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인생에서 진짜 비극이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는 순간이다. 친구 녀석의 아버지는 썩 괜찮은 교회의 좋은 목사였고 공동체 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이셨다. 그 분은 분명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아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이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형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이다. 나 역시 목사로서, 상처란 부모 혹은 남편이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는 걸 자주 보았다. 일찍이, 나는 내 가족 안에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아이들하고 아내와 더 없이 좋은 사이가 되리라 결심했다. 아이들이 그들에 대한 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경우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이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했다. 항상 내 마음을 가족들에게 말하려고 했으며 행동으로 옮겼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가능한 한 자주 하면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특별하고 듣기 좋은 별명을 지어주어 내가 별명들을 부를 때마다 아이들이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막내 딸 아만다는 “귀여움쟁이(What-a-Kid)”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아빠가 너를 왜 “귀여움쟁이”라고 부르는지 알지, 그렇지? 왜냐하면 너는 항상 귀여우니까... 무슨 말이나면, 너는 정말 귀여운 아이이고, 그래서 아빠는 너를 듬뿍 사랑한다는 거야.”

학교 들어가기 전 제시카는 원더우먼(*Wonder Woman*)이라는 TV 쇼의 팬이 었기 때문에 큰 딸 제시카에게 붙여준 별명은 “놀라움쟁이 (*Wonder Girl*)”였다. 다. 그리고는 제시카에게도 “안녕, 놀라움쟁이야. 내 평생 너처럼 놀라운 아이가 어떻게 내 딸로 태어났는지 놀라울 뿐이야.”라고 말해주곤 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학교친구들

이나 심지어 그들의 부모님들이 지어준 상처를 주는 별명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라깽이(Skinny)”, “똥똥보(Fatty)”, “넙대기(Wide One)”, “느림보 조(Slow Joe)”, 말고도 애칭으로는 너무하다싶은 별명들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린 시절 그 상처를 주는 별명들에 순응하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를 생각해본다. “네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특별한 이름을 들으며 자녀가 성장하도록 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었을까? 지금은 성인이 된 딸아이 하나가 지난해 아버지날에 내게 보낸 편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다.

---

아빠,

아빠에게는 존경할 점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부터 말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인생에서 이뤄놓으신 것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늘 진취적이며 시대를 앞서 가는 분이셨어요. 이런 성품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그토록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가족을 부끄럽게 하거나 난처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실 때는 가족을 위해 싸워주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분명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우리가 족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제 아이들과 잘 지내시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마음이 너무 벅차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무척 사랑해서 할아버지 이름만 나와도 얼굴에 화색이 들거든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쏟은 사랑과 시간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아만다와 제게 꼭 필요한 아빠가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아빠를 존경해요. 우리를 위해 항상 그 자리에 계셔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엄마를 사랑하시고 엄마 곁에 함께 있어주셨죠. 심지어 힘든 상황에서도 한결 같게요. 아마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모범적인 결혼생활을 보여주셨죠.

책 속에 등장하는 그러한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를 나의 아빠로 부를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아마도 제가 표현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아빠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시카

나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해왔지만, 이 책에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녀와 그 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에 대해 말하고 싶다. 우리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며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펜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 메모, 그리고 카드에 관한 얘기다.

데이빗 던(David Dunn)은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쓰는 편지나 메모에는 뭔가 당신만의 고유한 특징이 들어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당신에 대한 관심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 애쓸 정도로 나는 당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sup>1)</sup>”

편지는 인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어,

-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많은 영적 진실들을 가르쳐왔다. 성서에는 로마신자들에게 보낸 서간부터 유다 서간에 이르는 스물 한 편의 “서간,” 혹은 편지가 있다.

1) Dunn, *Try Giving Yourself Away*, Page 57

- 전쟁을 일으키고 종식시켜왔다. 암살을 초래하기도 하고 정부로 하여금 사면을 내리게 하여 사형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우정을 다져주는 반면 여러 세대에 걸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 로맨스에 불을 당기기도하고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도 하였다. 즉, “디어 존 (Dear John)” 편지처럼 말이다.
- 집배원, 전서구, 전신, 팩스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전자우편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수마일 떨어져있거나 혹은 몇 달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대상에게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간이 양피지위에 글을 쓰기 시작한 그 날은 참으로 획기적이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라는 도구를 다시 붙잡아야 할 때다. 만일 이 책을 계기로 당신이 “편지를 쓰는 관계 회복자”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매우 기쁘겠다.

당신이 우편함을 가득 채운 청구서와 광고물 더미에 묻혀있는 손 편지나 메모를 발견하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어느 날 당신이 느끼는 기쁨에 관해서 생각해봐라. 먼 곳에서 친구가 보내온 자기만의 독특한 손 글씨로 쓴 메모를 발견하는 일은 삶의 소소한 기쁨들 중 하나이다. 만일 우편함에 들어있는 깜짝 선물이 당신에게 기쁨을 안겨준다면, 우편물들 사이에 당신이 손으로 쓴 메모를 발견할 때, 당신 가족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내 친구 리디아가 보낸 편지를 소개해 볼까 한다.

---

2003년 1월 27일

베컴 목사님께,

지난 주일에 제가 얼마나 설교를 즐겁게 들었는지 전하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올해 초에, 설교를 듣고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지 그리고 목숨을 바칠 만큼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뭘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주일들이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어 2003년에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려요.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리디아 올림

바쁜 하루 중에 이런 멋진 글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런 짧은 글을 읽는 동안 나의 감정이 얼마나 벅차올랐었는지 지금도 기억한다. 리디아는 많은 시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나의 한 주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편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었으니, 소통을 하기 위해 편지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얘기해 보자. 첫째, 뒤죽박죽 섞여 있는 마음속 모든 생각으로부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편지는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는 불필요한 단어나 생각들을 추려낼 기회를 준다. 둘째, 편지를 받은 상대는 반박을 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주장하는 바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말로 하는 대화를 능가하는 편지의 대단한 장점이다. 셋째, 대화와는 달리, 글을 통해 친구와 소통을 하기 전에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경우 이메일은 예외다. 왜냐하면 이메일 특성상 글을 쓰면 거의 곧바로 상대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신중해라. 격한 감정이 실린 이메일을 쓸 때면 나는 그것을 보내기까지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 규칙 덕분에 굉장히 난처할

수 있는 상황과 감정적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이것이다. 만약 편지나 메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글들은 곧바로 소중한 기념품이 되고 일반적으로 죽을 때 까지 고이 간직한다.

내가 이 책을 엮고 있을 때, 딸들에게 여러 해 동안 내가 보냈던 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들을 그대로 책에 실어도 되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내가 보낸 편지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직원들에게 내가 보낸 편지들을 사용하고 싶다는 똑같은 부탁을 했을 때, 그들 역시 편지와 메모 모두를 보관하고 있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람에게 편지쓰기를 시작해보라고 당신을 설득해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어질 질문은 “누구한테 써야하나요?” 일 것이다. 바로 이들이다.

-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
- 상처받고 있는 이들
-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이들
-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여기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좋은 예를 실어보았다. 언젠가 제시카를 학교에 내려주고 아침에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정신이 없다보니 참으로 딸과 함께 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날 제시카에게 한 편의 시를 쓴 적이 있다.

### 제시카에게, 후회스러운 마음을 담아

오늘아침은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네.

네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나는 반했네.  
너의 아름다움과 용기에, 그리고 내 마음은 부풀어 올랐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네!

피곤하고 마음이 우울했었네.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있었네.  
아빠에게는 해야 할 일, 근심거리, 절망감이 있었기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네.

너는 겨를이 없었고,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이 우리 둘을 향해 손짓하  
네.  
네 머릿속은 생각해야 할 것들로 가득하고, 내 머릿속은 터질 지경  
이었네.  
하지만 너는 그 자리에 있어주었네, 귀중한 자투리 시간을 내어 내  
옆에 있어주었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네.

미안하구나, 그래서 지금 말하려네.  
너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나의 가슴이 미어지지만 너를  
사랑한다.

### **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너를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마음은 아무도 못 말리지.  
내 육신의 피붙이이자 내가 꿈꾸는 미래...  
그래서 말을 하려네.

못난 아빠를 너그러이 용서해주렴.  
가끔은 표현하는 것을 잊는다는 걸 알고 있으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항상 알고 있으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잊는 그 순간에도.

아빠가

지금쯤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뭔가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무슨 내용을 꼭 집어서 적어야할지 궁금할 것이다. 여기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생각들이 있다.

- 진실을 써라.
-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담긴 편지나 메모는 과장을 하거나 지나치게 꾸며서 쓰기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진실하게 전달하고 당신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하라.
- 마음을 터놓아라.
- 당신의 메모가 진부하고 상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고 진지함이 결여된 주저리 주저리 이어지는 문장으로 만들지 마라.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표현하고 상대방의 삶을 알게 되고 그 삶의 일부가 된 것이 기쁘다고 얘기하라. 기억해라, 이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편지라는 것을! 다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겁내지 마라.

결혼 첫 해에 장모님에게서 받은 편지를 함께 해볼까 한다. 물론, 칭찬에 관대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나는 분명 그 모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편지의 좋은 예가 된다.

---

1974년 4월 26일

사위 보게나,

6개월 전쯤이었던가, 종이위에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적고 싶었네만, 왠지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지. 오늘 운전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 할 말이 문득 생각나 더구나.

내가 기억하기로 자네가 바바라를 책임지겠다고 한 말은 (바바라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했던 그 말처럼)우리 둘 사이에는 늘 농담거리가 되었지. 바바라에게 자네는 펄이나 다정한 “친오빠” 였다네.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 자네와 내 딸에게는 항상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하네. 자네와 내가 알고 있듯이, 바바라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인생을 바쳐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지 나와 여러 번 얘기를 나누었었네. 딸애는 꿈이 아주 컸지.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네뿐이라네. 하느님을 섬기는 자네의 태도가 무척 자랑스러워. 자네는 내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었지. 하지만 자네의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다네), 내가 씨름하던 몇 가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지.

자네가 공부에 매진하는 동안에는 뒤를 돌아봄 없이 항상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네. 그리고 자네의 목표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언제나 자네 편에 있을 것이고 만약 자네가 아빠, 엄마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곁에 있어 주겠네. 내 딸 바바라를 그토록 행복하게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어찌 표현할까?

머칠 있으면 자네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게 되겠지. 자네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던 그 주 일요일이 생각나는구나. 일요일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하기위해 신혼여행에서 서둘러 돌아왔고 그날 교회는 신도들로 꽉 찼었지. 우리는 설교단 위에서 있는 자네가 무척 자랑스러웠다네. 자네는 내 마음을 울리는 얘기를 해 주었지. “금요일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우리부부에게는 정말이지 아들이 하나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네.

우리 아들에게

데이비스 엄마와 아빠

어쨌든, 30년 전에 받은 바로 그 손 편지를 내 책상에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가장 허심탄회하고 강렬한 방식으로 장모님께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준 그야말로 소중한 기념품이다.

편지를 어떻게 쓸지, 누구에게 쓸지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편지를 쓸 때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로 가득한 글을 써 보도록 권하고 싶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건 혹은 은퇴시기인 “노년기”에 접어드는 노인이건, 모든 사람들은 도전과제를 안고 살아간다. 사기를 높여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글을 쓰고, 또한 사람들에게 “펜과 잉크로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되어주는 글을 써라. 당신의 메모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도 편지를 쓸 기회로 넘쳐난다. 하느님께서 우리인간의 특성과 운명을 결정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몸소 체험했으며 그러한 것들은 알려져야 한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소재로 남성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받았던 메모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백 명 가량의 남성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아내에게 썼던 편지들을 예로 들면서 ‘심금을 울리는 편지’의 개념에 관한 강의를 막 마친 상태였다. 이런 주제의 세미나를 마무리 할 때는 언제나 참석자들

이 자리를 뜨기 전에 누군가에게 글을 쓸 시간을 갖도록 한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첫 구절이 적힌 종이를 나누어주기도 한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객석에는 나의 소중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 쓴 편지를 나에게 건네주어서 깜짝 놀랐다. 그것을 함께 하고자 실어보았다. 친구가 준 글은 나에게 소중한 기념품이기도 하지만, 왜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

김에게,

자네의 강의가 요즘 내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과 같은 것이라 매우 흥미롭네. 자네의 강의는 편지쓰기를 강조하였고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지. 머릿속에서는 얼마간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 오고 있었지만, 그 중 몇 개는 아직 편지지에 옮기지 못했다네. 자네 강의는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었고 나는 실행에 옮길 결세. 그리고 여러 해 쌓아 온 우정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준 자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네. 늘 하나님의 은총이 자네와 자네의 멋진 아내에게 함께 하기를. 자네 편지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그리고 정말로 필요했던 용기를 주어 고맙네.

프랭크

다음 장에서는, 효과적인 편지와 카드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실질적인 조언을 해 보겠다. 아이들, 십대 청소년, 배우자, 그리고 사랑과 용기를 주는 말로 영향을 주고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관련 있는 특별한 도전과제들을 통해 설명을 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음 장들을 읽으면서 당신이 펜을 들거나 컴퓨터를 켜서 용기를 가지고 소중한 이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내용의 편지를 썼으면 하는 것이다. 이제 시작해보자.

제 2 장

가장 소중한 말 전하기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들 대부분은 상상이상의 열정으로 자녀들과 손자들을 사랑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하는 것이다.

크리스천 부모로서, 하느님과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치고 격려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담긴 두 개의 성경구절이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잠언 22:6, 흠정역)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페소서 6:4, 새국제역본)

막내딸이 겨우 여덟 살이었을 때 나에게 보냈던 편지를 소개할까한다. 딸애는 YMCA에 수영하러가고 싶어 했고, 나는 그 애를 데려다주기 위해 평일 오후를 쉬었다. 또한 딸아이에게 어린이 고전도서인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을 읽어주고 있었다. 기념품을 모아두는 파일에서 이 편지를 볼 수 있는데, 편지에는 심장을 관통하는 화살, 거미줄, 자전거, 그리고 비디오 영화 케이스 등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다. 아만다가 여덟 살이었던 시절에 쓴 맞춤법과 구두점 실력을 여기에 그대로 살려보았는데, 이런 점들이 이 편지를 더욱 소중한게 만든다.

---

1989년 11월 11일

아빠에게

오 늘밤에 샬롯의 거미줄을 읽게 된다면 좋겠어요. 아빠를 많이 사랑해요. 토요일에 수영하러 데려가 주어서 고맙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아마 올해 크스마스에 새 자전거를 사 주실 거지요. 게다가 영화 “공룡시대” (The Land Before Time)가 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만 줄여야겠어요. 여전히 아빠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딸,**

**아만다 B.**

기억조차 희미한 오래 전 그 날 아만다를 데리고 수영하러 갈 시간을 낼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그 당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아만다는 아빠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해 겨울 오후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무언가가 딸의 삶 속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아이들을 어딘가로 데리고 가기 위해 항상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메모를 남기거나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잠을 낼 수는 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글로 쓰인 말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줄 몇 가지 연령별 조언들이 있다.

첫째로, 아이들에게 편지 쓰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자. 이런 문제들 대부분은 아이들 나이와 사회성숙도에 초점을 둔다. 물론,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려면 아이들은 반드시 글을 읽을 줄 알아야한다는 필요조건이 뒤따른다. 알파벳조차도 배워본 적이 없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기에게 편지를 쓴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몇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제일 어린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겠지만, 심지어 글을 읽지 못한 다해도 아이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생각을 깡그리 무시하지는 말자. 세 살짜리 꼬마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눈에 보이는 곳에 쪽지나 카드를 걸어 두거나 보관을 해 둘 수 있다면 아이에게 글로 전하는 것은 굉장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손녀딸이 겨우 세 살이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보낸 ‘네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 는 내용이 담긴 누렇게 바래고 너털너털해졌지만 소중한 간직해온 카드를 열여섯 살 소녀가 되어 열어보았을 때 느낄 기쁨을 상상해봐라. 그런 편지는 아이들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념품이 될 것이다.

어린이에게 편지를 쓰는 데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건, 무엇을 쓰던지 비유를 하거나 돌려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삶을 이해하고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말이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점이 편지로 어린이들을 나무랄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삶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이 거의 없으며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 가슴깊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아이들을 위해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아라. “비난은 치명적일 수 있다.”

아이들마다 심리적 발달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라. 유명한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Jean Piaget)는 수년 간 교육자들에게 아이들마다 정신발달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왔다. 피아제가 분류한 성숙도에 대한 범주를 살펴본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자녀에게 편지쓰기를 시작할 때 도움을 주고자 실어 보았다. 피아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인지발달단계를 구분하였다.

1. 감각운동기: 0-2세

2. 전조작기: 2-6세

3. 구체적 조작기: 6-11세

(“추리력이 점차 빨라지지만, 여전히 매우 약한 수준이다. 학습은 구체적이다. 이 나이대의 아동들은 흑백논리로 사고를 한다.”<sup>2)</sup>)

4. 형식적 조작기: 11, 12세부터 성인

이와 같은 간략한 정리덕분에 막 중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에게 편지를 써왔

---

2) Piaget, *Six Psychological Studies*, Selected passages

던 것보다 1학년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1학년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구체적인 사고를 한다. 만일 한 아이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라고 말을 한다면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당신의 발 등에 실제로 불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떠올릴 것이어서, 풍자하는 말이나 어른들이 쓰는 상투적인 말들을 주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소책자이지만 볼만한 책 『하느님께 보낸 어린이들의 편지(Children's Letters to God)』에는 어린이들이 흑백논리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가 있다.

---

하느님께,

왜 주일학교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 톰 L.

---

하느님 보세요,

아빠가 집에서 나쁜 말을 쓰면 천당에 못 간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타

---

하느님에게,

하느님이 질투가 많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셨잖아요?

- 제인

---

하느님께,

코 목사님이 하느님 친구예요? 아니면 일 때문에 그냥 아는 사이인가요?

- 도니

---

하느님,

죄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쟁 같은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 팀 M., 9

---

하느님께,

하느님께서 주일날 교회에서 저를 지켜보신다면 저의 새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 미키 D.

---

아니님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 프랭크3)

내가 좋아하는 친구 중에 초등학교 시절 불쾌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다. 선생님은 못마땅한 듯 화를 내며, “어쩜 그렇게도 멍청하니?”라고 물었다. 3학년 반 전체가 있는 앞에서 들었던 그 질문은 평생 친구를 따라다녔다. 육십이 된 나이에 도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었다는 것을 얘기할 때면 아직도 눈에 눈물이 맺힌다. 비난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삼가라. 물론, 아이들을 기르는데 있어서 지시하고 야단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심금을 울리는 편지”는 이런 목적으로 쓰기에는 적절한 표현수단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써야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글로 표현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편지쓰기를 시작할 수 있다. 엄마와 아빠는 자녀들을 향해 품고 있는 깊은 애정을 말로 표현해야 하며 그 마음을 글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이런 편지들은 아이들의 손과 마음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딸이 겨우 열 두 살이었을 때 딸에게 쓴 편지를 함께 해보고 싶다. 그 당시 나는 한 교회의 목사직을 수락했었고, 그것은 우리 가족이 새로운 도시로 옮겨야한다는 의미였다. 이런 변화는 막 중학교에 들어가는 제시카에게는 특히 버거운 일이었다. 내가 얼마나 제시카를 안심시키고 두려움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는지 이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

3) Hample and Marshall, *Children's Letters to God*, New York

제시카에게,

아빠가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너는 아름다운 소녀로 커가고 있어. 상냥한 마음 또한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 아주 기쁘구나. “사랑해요.” 라고 말 하며 우리를 안아줄 수 있게 된 너의 모습이 보기 좋구나. 감정을 나누는 것이 너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정말로 훌륭해.

바로 지금이 너에게는 두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안다. 이사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빠 역시도 조금은 두려운 것 같아 주었으면 좋겠어.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이사하는 것이 나와 아만다 그리고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걱정이야. 하지만 결론은, 아빠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 주십시오 내 삶을 바쳤다는 것이지. 만일 그 분께서 우리가 이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느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있으며, 나와 나의 가족에게 결코 상처를 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 제시카,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신다면 비록 잠시 동안은 고통스럽겠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망설임과 두려움의 시간은 나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일깨워준다. 내 삶에서 너희들은 최고의 선물이며, 두려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너희들이 머무르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너무 좋단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제시카.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지켜줄게.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 우리너머로 너를 처음 보았어. 온 몸은 빨강고 울고 있더라. 아름다운 검은 머리칼을 가진 너는 아주 작고 어려 보였어. 아빠는 너를 보며

울었어.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렸단다. “하느님, 이런 소중한 딸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 아이가 결코 배고프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모든 고통에서 너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가 아플 때 나에게 기대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어주마.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제시카,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사랑하는,

아빠가

어린이들에게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오늘 시간을 내어 가만히 앉아 당신 삶에 소중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적어봄이 어떤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적절한 때란 언제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와 성공을 했을 때야말로 당신이 가진 사랑을 함께 나눌 최고의 시간이다. 아이들에게는 살아가면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될 때 격려가 필요하다. 어른으로서 우리는 아이들이 아주 어리면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상처는 상처인 것이다. 어린이들은 종종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 친한 친구와의 이별, 학교에서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그 외의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격려가 필요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써라, 그리고 힘든 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어라, 아이들이 당신의 사랑은 영원할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기회와 삶에서 이룬 성공을 축하해 줄 기회를 반드시 잡아라. 체조경기, 철자 맞추기 대회, 소년리그 팀 등에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모든 경우가 성취한 것들이 자랑스럽고 기쁘다는 카드를 보낼 좋은 핑계가 된다. 야구팀을 구성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자그마한 성과로 보일수도 있지만, 짧은 생을 살아온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아껴둘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축하

해 주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하는가?

- 카드나 편지는 짧게 써라.
- 내용은 간단히 적어라. 어린이의 나이를 감안하여 쓰되 걸작소설을 만들지 말라. 마음만 나누면 된다.
- 그저 상투적인 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만의 마음을 적어라.
- 가능한 독창적으로 써라. 나는 늘 사람들의 창의력에 놀란다. 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사람들이 알려준 몇 가지 기발한 생각들이 있다.

내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날들을 점심 도시락을 썼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는 짧은 글을 각각의 도시락에 함께 넣어주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도시락에 끼워주었던 쪽지가 자신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고 말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 어머니는, “그런 간단한 편지를 쓸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어느 힘에 겨운 날 내 아이가 도시락을 열었을 때 엄마의 사랑이 담긴 글을 발견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아이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이라도 할 가치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 어머니의 생각은 옳았고, 아이들은 엄마를 굉장히 좋아했다. 또 다른 엄마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게 해 주려고 아이의 방문에 혹은 벽에 걸어 둘 종이플래카드를 만드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이 힘든 학교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열 살 바기 아이라고 상상해 보라. 자기 방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벽에서 벽으로 걸린 “넌 굉장한 아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4학년이야.”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마주하게 된다.

핵심은 독창성을 기르고 자녀들과 그 밖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런데 당신은 저의 십대 자녀를 모르시

짧아요?” “도대체 어떻게 편지를 쓰면 될까요?”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질문해 주어서 기쁘다. 왜냐하면 다음 장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 제 3 장

## 십대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

십대들은 다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아이들과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시간의 변화 촉진자인 아이들이 십대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친다. 모든 면에서 아이들이 확 달라진다. 한 달 전만해도 긍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주위를 즐겁게 해주었던 아이가 감정기복이 심하고 신경질적이며 말수가 줄어든 십대가 되는데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질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것에 관해 딸아이와 농담을 하며 말한다. “십대에 너는 아무 탈 없이 보냈지. 그냥 단순히 열네 살 때 네 방으로 들어가더니 스무 살이 되서야 나오더라!” 물론 과장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농담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십대아이들과 지내보았기 때문에 내 딸이 스스로 자초해 홀로 그 시기를 보내 준 것이 감사한 일임을 알게 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십대의 시기를 거치는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기르는 것은 어려움과 감정의 지뢰투성이인 일이다. 하지만 이 시기가 바로 **심금을 울리는 편지**가 크게 도움이 될 때이다. 청소년기는 아이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해 편지라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내 딸 아만다가 열세 살 즉, 8학년 이었을 때 내가 보냈던 편지를 함께 읽어 볼까한다. 아만다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이 편지는 십대들에게 편지를 쓸 때 유념해야할 중요한 점들을 자세히 알려준다.

---

**사랑하는 아만다에게,**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어제 저녁식사 때처럼 네가 꼭 가라앉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십대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구나.

아빠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다시 한 번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단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8학년생인 내 딸이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 못할 일은 거의 없어.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구나. 가끔씩 시작은 더디지만 상황이 나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수업이 시작되고 첫 이틀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의미는 아니야. 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될 거고 (그 누가 너처럼 아주 괜찮은 아이와 친구하고 싶지 않겠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또한 우울증에 대해 얘기해 주고 싶구나. 아마 너도 알고 있겠지만 때로는 심리 학자들이 사람들을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성격으로 분류한다. 한 가지 리스트를 기술해 보면 담즙질, 우울질, 다혈질 그리고 점액질이라는 나대 기질론이 있어. 내 생각에 너는 우울질에 속하는 것 같아. 걱정마라. 나쁜 것이 아니란다. 우울질에 속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 예술가, 작가, 화가와 천재들도 대부분 우울질이었듯이 아빠 역시 그래. 우울질인 사람들은 창의력이 있으며 사람들을 평소 보다 정신적으로 기분을 한껏 고양시켜준다. 한 가지 단점은 우울질인 우리는 수차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또한 모든 일은 반드시 완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야. 그렇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은 우리를 큰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단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내 스스로도 머릿속에 새겨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 그저 푸념을 늘어놓기 보다는 세상 밖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또한 이런 기질을 극복해 나가야 할 거야.

비록 우울질인 사람들은 우울함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경우에 우울한 기분을 함께 나누게 되면 더욱 좋지 않단다. 친구들이 네 기분을 풀어 주려고 노력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놔둬라. 자신의 신실함을 너에게 확실히 보여주려고 매번 너를 찾아오게 만들지 말고 빨리 그 마음을 알아주어라. 너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빠나 엄마 혹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야. 아무렴 그래야지. 우리는 너를 돕는 게 너무 좋단다. 단지 우리는 가끔씩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는 뜻이야. 어쨌든 너는 행복하게 살

아야 해.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가짜로 즐거운 척 하는 것이 진짜로 우울한 것 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두렴. 성경에 나온 충고를 받아들여서 울적할 때는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은총을 헤아려보아라.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이렴.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부르거나 경쾌한 음악을 들어보라. 종종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기분을 바꿀 수가 있다.

너는 장차 굉장히 멋진 여성이 될 아름다운 아이야. 세상에 베풀어 줄 것이 많고 기대할 것이 많은 아이지. 가능한 한 많이 인생을 즐기려고 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빠에게 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사랑해,

아빠가

딸아이는 이 편지를 읽고서는 다가오더니 나를 껴안았다. 우리는 중요한 점들을 짚어가며 인생과 인생의 도전과제들에 대해 뜻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편지를 쓸 시간을 냈다는 사실에 기쁘다. 아만다는 몇 년이 흘러도 이따금씩 용기를 얻고 싶을 때는 여전히 이 편지를 읽는다고 한다.

십대들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자. 십대들을 가르치려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항상 칭찬부터 적어라. 편지의 끝부분에 칭찬을 해준다 해도 칭찬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린청소년들은 끝까지 쪽 읽어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려던 칭찬이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자만”하게 만든다는 걱정은 하지 말라. 십대는 매우 불안함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충분히 생각하여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해 주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비유를 들어도 좋고 그림을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십대들은 세련되어서 충분히 이런 문학적인 개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당신의 소통능력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신은 분명 자신만의 경험과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적고 싶어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십대로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살면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라. 당신 삶에서 나온 이야기를 사용할 때는 나약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라. 당신이 자신만의 삶과 힘겹게 싸웠고 현재 십대인 자녀들과 같은 십대였을 때는 실수를 하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편지나 쪽지를 끝맺음 할 때는 항상 아이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라. 부모로부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또는 “난 널 믿는다.”라는 말은 십대에게 엄청난 용기를 준다. 사람들은 우리가 거는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실은 특히 우리가 십대들을 대할 때 두드러진다.

십대들에게 언제 편지를 쓰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다. 십대 시절은 변화가 심하고 혼란스러우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높은 평가를 받는 기독교 심리학 교재에서 인용한 문구를 보자.

“아들 혹은 딸이 열두 살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 아이로 여긴다. 4년 후, 그 아이들은 성인의 신체가 되고 생식능력을 가지게 되고 독립을 갈망하는 젊은 남성 혹은 젊은 여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4년은 아마도 개인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에 반드시 일어나는 이러한 주된 변화들은 인생에서의 첫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격려해줌으로써 그 과정이 매우 수월해진다. 물론,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의 지도와 훈육이 필요하다.”<sup>4)</sup>

13세와 18세 사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흔히 삶에서 가장 중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감당해야 한다. 우울함, 또래 집단이 주는 압박감, 성, 학교라는 부담감 같은 문제들과 더불어 삶은 종종 공평하지 않다고 깨닫는 것 또한 우리 십대들

---

4) Meir and Minirith, *Introduction to Christian Psychology-Adolescent Development*, Page 204

하루하루 삶에 늘 있는 일들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하비거스트(Robert Havighurst)박사는 청소년기에 십대들이 직면하는 도전과제들에 관해 썼다. 십대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여덟 가지 과업으로 구분하였다.

### 청소년기에 마스터해야 할 발달과업

1. 또래들과 더 성숙된 관계의 발달
2. 적절한 성 역할의 발달
3. 자신의 체격의 수용
4. 성인으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심 발달
5. 결혼과 가족에 대한 준비
6. 직업선택에 대한 준비
7. 이념 혹은 행동의 지침이 되는 가치와 윤리 형성
8.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형성<sup>5)</sup>

십대라는 어린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압박이 있다. 그래서 십대들이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써 보면 어떨까? 십대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격려의 말이 담긴 당신의 짙막한 편지는 아이들의 기분을 훨씬 좋게 만들어준다.

또한 아이들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당신에게 생긴다면 놓치지 말라. 팀

---

5) Havighurst,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의 일원이 된 것을, 어려운 학업을 통과한 것을, 혹은 선교여행을 가게 된 것을 칭찬해주는 글을 써라. 뭔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을 축하해주고 종이에 옮겨 적어라. 축하해주는 글들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자녀는 평생 동안 당신이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 쪽지를 고이 간직할 것이다.

십대들에게 편지를 쓰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사춘기 시절은 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의 집단보다 십대들에게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두 가지 사실 때문인데 그 첫 번째는 한 철학자가 “사고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라고 말했듯이 십대들은 철학적으로 즉,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다. 난생 처음으로 십대들은 단순히 인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당당하고 이치에 맞는 선택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여전히 어리다는 것이다. 옛 속담에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 몸에 베인 행동양식을 고치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어린 사람들에게 변화란 훨씬 쉬운 것이다. 십대들이 새로이 거듭나려는 올바른 동기가 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나가기에 충분히 어리다. 현명한 부모들과 지도자들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창을 이용해야만 하며, “심금을 울리는 편지”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변화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편지를 써라, 꼭 그렇게 해봐라!

우리가 사춘기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 계속 고민해보면서, 십대 후반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아이들의 전 일생에 걸쳐서 꾸준히 다가가야 한다.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있다고 해서 그만하라는 뜻은 아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을 때의 효과는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나가도록 놓아주어야만 할 때 빛을 발할 것이다.

아이들은 자라면 결국 모두 떠난다. 아이들이 마침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모조리 다 잘못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교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몇 년간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런 일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서른 몇 살 쯤 된 남성 혹은 여성이 아직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큼 이상한 것은 없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주려고 노력하고 때가되면 아이들을 날아가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떠나도록 놓아주는” 몇 몇 순간들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다. 아마도 대학교 1학년이 그런 시기이며, 그 때는 아이들이 집과 떨어져 기숙사나 아파트에 살게 된다. 이때가 어른으로서 삶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편지를 써서 함께 나눌 환상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나는 딸아이에게 기도문 형식으로 편지를 썼고 십대로서 집에 머무는 마지막 날 편지를 전해주었다. 이 편지로 당신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에 들어갈 몇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주님,

오늘이 딸애가 집에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비록 마음이 변해서 몇 주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결코 다시는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대신해 딸의 인성을 형성시키고 외형을 갖추게 해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끝났습니다. 내 딸은 이제 젊은 여성이 되었고 독립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결정을 해야 할 많은 순간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 외에 응답을 해 주는 이가 없을 때 계속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소서.

주님, 너무도 행복한 18년이라는 시간동안 저희 가정에 딸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은 우리 인생에서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십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불평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가끔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시카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너무 즐거웠으니까요. 감사하

니다, 주님. 여러모로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시카에게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편하게 해주려 했는데도 교회에서 항상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학생이었고 진정한 근면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제시카가 비취지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제시카의 자부심에 대견함을 느낍니다. 참으로 “엄마를 쏙 빼 닮았으며” 같은 여자들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제시카를 위해 해 주십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를 대신해서 제 딸을 지켜주소서. 저는 주님께서 언제나 제시카를 보살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적어도 제가 제 딸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시카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한 많이 이 세상에 추한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여주소서. 제 딸이 신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분별력을 갖추게 도와주시고, 밤에는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제시카를 지켜주소서. 제시카는 언제나 엄마, 아빠의 딸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주소서.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주시고, 터무니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현명함을 주소서.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알게 하여주시어, 조금이라도 자신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저에게 선물을 안겨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분명 제시카는 주님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들 중 하나일 겁니다. 저희를 떠나는 순간에도 제시카와 늘 함께 하여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제시카를 지켜 주소서. 아멘.

사랑한다,

아빠가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다. 그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지 말고, 반드시 가능한 한 가장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해라. 가장 소중한 사람들 즉, 십대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을 전하고 그것을 글로 옮겨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단지 아이들과 청소년들만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몇몇 장들을 통해,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할 또 다른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편지를 쓸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기술들을 알게 될 것이다.

제 4 장  
배우자에게 편지쓰기

한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당연하게 받아드렸던 혹은 당신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들을 외면하게 되고 그것들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가장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와 하느님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그저 우리의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인생에서 “갈망”하는 것들에 관심을 둔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배우자와 하느님을 등한시한다. 만일 시큰둥하고 냉담하며 혹은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유대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며 자신이 혼자이며 세상에서 길을 잃었음을 알게 된다. 이 책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다. 하느님을 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목사가 다루도록 남겨두고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많은 남성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옷장은 비어있고 진절머리가 날 만큼 난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남기고 간 쪽지가 편으로 베개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한다. 흔히, 남성들은 “아내가 기분이 상했다는 것조차 몰랐어.” 아니면, “어떻게 나를 떠날 수가 있지?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와 같은 말들을 할 것이다. 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당신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내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는 것이 생활화된 남편들의 감춰진 감정들이 아내들에게는 필사적으로 풀고 싶은 수수께끼이기 때문이다.

왜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가슴깊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가장 명백한 이유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남자들은 당연하게 여길 거라는 것이다. 토론에 참석했던 씩씩한 카우보이를 기억한다. 주제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카우보이는 불쑥 이런 말을 했다. “결혼할 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랬으면 아내에게 말했겠죠.” 그러한 논리는 남자들에게는 확고한 듯 보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남녀사이에 감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며 이것은 모든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진실이다. 쪽지나 카드를 통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어서는 안 되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만일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의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즐겨 할 거라고 여자들은 생각한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해야 할 일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결혼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말다툼이 소통양식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조차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당연히 입씨름을 벌이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로 감정을 건드리며 비난을 하면서 몇 년을 지내다 보면 마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에서는 “우리 포도밭을 망치는 저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에게 상스러운 말들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 배우자를 깎아내리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몇 년을 보내다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고 가장 소중한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측면을 짚어보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 심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데, 배우자에게서 조롱을 받거나 거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설득력 있는 충고를 해보겠다. 배우자가 가슴 깊숙이 있는 감정을 나누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비웃지 말라!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무리 서툴고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쓰려는 시도가 아무리 우스꽝스러워도 비웃거나 핀잔을 주지 말라. 그렇게 해버리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맘 편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상대에게 일깨워주는 것과 같다. 몇 년이 흘러 마음에서 멀어진 듯 보이는 배우자에게서 사랑표현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사랑을 공유하려고 일찌감치 행해졌던 시도를 가벼이 여겼을 때 받은 무안함으로 거슬러 찾아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배우자가 마음을 열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위해 감정을 표현

하는 용기를 항상 존중하라.

배우자에게 언제 편지를 써야 할까? 기회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 상대방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을 때 반드시 축하카드를 써보는 것으로 편지쓰기를 시작해보아라. 이를테면, 내가 상담학 석사과정을 마쳤을 때 아내 바바라가 보낸 카드가 있다. 카드에는 천국으로 뻗은 사다리 그림이 있었고 카드를 열었을 때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었다.

---

**당신에게,**

그저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말을 하려하는데도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저는 “인내심” 이 있는 사람을 아주 높이 산답니다. 당신은 끈기가 있으며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올라요.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서 해내잖아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바바라**

나는 기념품을 담아두는 특별한 서랍에 이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서랍은 나의 소중한 물건들을 간직해두는 곳이다. 문득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자랑스럽다는 아내의 글을 다시 읽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일이며 그러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졸업식 날 시간을 내어 나에 대한 감정을 글로 표현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아내나 남편은 과연 어떤 성공을 핑계 삼아 쪽지나 카드로 사랑을 전달 할 수 있었을까?

손에 펜을 들거나 컴퓨터에 앉아 뿌듯해하는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다. 아내들 모두 죽을힘을 다해 아들 혹은 딸을 낳고 난 후 사랑의 편지를 받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렇다면 카드를 써보는 건 어떨

까? 승진했을 때나 기업캠페인에 성공했을 때 축하 글을 쓸 수 있고, 물론, 배우자가 살아가면서 이루어 낸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에도 갈채를 보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생일, 기념일, 아버지날, 그리고 어머니날처럼 사람들 모두가 매년 기념하는 날들이 우리 문화에서는 편지를 쓰는 주된 기회들이다. 어느 아버지날에 아내로부터 가슴 뭉클한 카드를 받았다. 표지에는 “나의 남편에게, 사랑을 담아”라는 문구가 이미 인쇄되어있는 카드였고 남편이 있음으로 아내의 꿈이 완성된 것에 대한 내용의 글이었다. 카드를 열어보았을 때, “당신과 결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아내로서 기쁠 거예요.”라고 인쇄되어있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아내가 손수 쓴 구절이었다. “이 카드에 하고픈 말이 모두 적혀있어요. 당신은 단연 최고의 아빠이자 남편이라고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는 곧바로 그 카드를 추억을 담아두는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나를 좋은 남편이자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고 아내가 이 말을 표현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지 않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어느 해,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며칠에 걸쳐 어머니날이 올 때까지 아내에게 느끼는 고마운 점들을 써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그 목록들을 인쇄하여 전해주었다. 그것은 대성공이었고 아내는 자신만의 특별한 기념품 상자 안에 고이 넣어두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옮겨 보았는데 아내가 왜 그리 좋아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바바라 - 당신에게 고마운 점들

지난 14일 동안, 어머니날을 준비하며 당신에게 고마운 점들을 날마다 써 왔어요. 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마워합니다.

1. 나를 향한 100퍼센트 한결같은 사랑
2. 아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기꺼이 뒷바라지해주려는 마음

3. 내가 우울해 있을 때 다정하게 대해준 점
4. 할머니가 되었어도 여전히 멋진 외모
5. 내가 아플 때 사랑으로 돌봐준 점
6. 데이트를 할 때 재미있는 당신
7. 끊임없이 근면함을 보여주는 당신....당신은 굉장히 성실한 일꾼입니다.
8. 내 삶을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당신
9. 귀가하는 나를 사랑스럽게 기다려주는 당신
10. 네 발 달린 애완동물들을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를 향한 사랑
11. 쉬는 날에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당신
12. 착실하고 한결같은 당신... 나는 매일 매일을 당신의 그런 점에 의지합니다.
13.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처럼 불편한 일을 남을 위해 기꺼이 하는  
당신
14. 시댁 식구들 특히, 내 부모님에게 잘하는 당신. 바바라 당신은 훌륭한 엄마  
였고 지금도 훌륭한 엄마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보물이예요.

킴

당신의 배우자가 이러한 감사리스트를 받고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가

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오늘 하나 작성해보는 것은 어떤가? 배우자에게 적어야 할 목록에 관해서 네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하지만...그것들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윌리엄 할리(William Harley)가 쓴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 (*His Needs, Her Needs*)』이라는 훌륭한 저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상세히 열거하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 남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 오락적인 교제
- 매력적인 배우자
- 가족의 지지
- 아내의 존경심

####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 애정
- 대화
- 진실함과 솔직함
- 가족에 대한 남편의 헌신<sup>6)</sup>

---

6) Harley, *His needs, Her Needs*, Pages 12-13

이 욕구에 대한 목록은 낯선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지도가 필요하듯 편지 쓰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목록은 유용하고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아내에게 점수를 따고 싶은 남자들은 누구나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향한 애정과 가족에 대한 헌신을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여자들은 누구나 남편에 대한 존경과 기분전환을 위한 나들이가 즐겁다는 내용의 글을 쓸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멋진 외모와 능력을 칭찬할 것이다. 윌리엄 할리의 목록은 내가 항상 남자와 여자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던 것을 분명하게 해 주었다. 즉, *무엇을 쓰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편지를 쓰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자. 배우자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해보겠다.

첫째,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수 있다. 게다가 글이라는 멋진 도구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감정이 적힌 편지를 받는 상대방은 답장을 하기 전에 편지나 쪽지에 적힌 내용을 모조리 읽어야 한다. 거기에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응답을 하기 전에 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도록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남녀가 의사소통을 할 때 항상 마음이 잘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요전 날 어떤 카드를 보고 웃게 된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아내와 여자 친구와 문제가 있는 남자들을 위해서 안부인사 카드를 만들었다. 가장 웃겼던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했던지 미안해.”라고 시작한 카드였다. 나머지 내용은 “그게 무엇이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적어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약속하는 것이었다. 이 카드는 남녀가 서로에게 감정을 속 시원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풍자화한 것이다. 그러니 펜을 꺼내 편지쓰기를 시작해봐라.

많은 남성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 봤을 것이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혹은 “아내의 용기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말해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대화중에는 웬지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 지금 해라. 아내에게 카드를 건네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써라, 그리고 카드를 손에 쥐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뿌듯할 것이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둘째, 배우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또 다른 목적은 배우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남편 혹은 아내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당연시하는 성향은 가장 안타까운 인간의 본성이다. 가슴깊이 우러난 마음으로 배우자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만일 아내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우리관계에는 별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모두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장점을 칭찬해주는 말에 지겨워하는 사람은 없다. 나에게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친구가 있다. 함께 있을 때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가족 혹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 항상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며 칭찬에 있어서만큼은 진실한 친구다. 항상 칭찬할 거리를 잘 찾아내고 실없이 입에 발린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짐작이 가듯이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다. 나는 이 친구와 얘기를 하기위해서는 아무 때나 시간을 낼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이처럼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아는 사람들 모두 그 친구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장점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배우자가 가진 더 나은 장점들을 열거해보고 편지를 부쳐보면 어떨까? 직접 전해주지 말고 우편으로 직장이나 집으로 보내라. 아내가 광고물과 청구서 더미 속에서 편지를 발견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약속하건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선물이 될 것이다.

배우자에게 편지를 써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깊은 감정을 터놓는 것이다. 때론 감정을 통해 정말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과 가장 깊은 감정들을 표현할 방법을 찾으려 애쓰는 것으로 우리의 관계는 이득을 얻는다. 다시 말해, 편지를 쓰면 억지로라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열심히 생각하게 된다. 내가 영웅으로 삼는 크리스천 연설가이자 작가인 프레드 스미스(Fred Smith)는 “중요한 말을 전해야할 때는 먼저 글로 써라.”라고 조언을 한다. “만일 글로 옮길 수 없다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다.”<sup>7)</sup>라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배우자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종이위에 적어보려는 바로 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해 느끼는 신선하고 깊은 감정을 발견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Smith, *You and Your Networks*, Page 113

배우자에게 편지를 써야하는 마지막 이유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카드나 편지를 받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카드를 사거나 손수 편지를 쓰며, 우표를 찾아 편지를 부치러 우체국에 들를 정도로 너를 이 만큼 끔찍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느끼게 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은 소중한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배우자에게 편지를 써서 나에게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 번 확신을 주면 어떨까?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들이 있다.

- 창의적으로 써라.
- 이미 인쇄가 되어있는 안부인사카드는 아주 괜찮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모든 홀마크(Hallmark) 매장에는 배우자와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각종 상황에 맞는 카드들이 여러 열로 진열되어 있다. 사진을 찍어 카드나 편지에 동봉해봐라.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를 가지고도 배우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보통의 편지와는 차별화될 수 있게 만들어 줄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다.
- 개인적인 내용을 써라.
-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절대로 3인칭으로 쓰지 마라. 여자들은 이런 글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거슬린다. 대신에 이렇게 써봐라. “내가 당신을 끔찍이 위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얘기를 적어라.
- 모험을 해라.

- 위협을 무릅써라. 마음을 열고 당신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드러내라. 아직 당신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라. 마음의 층을 한 겹 더 벗겨 진짜 당신모습을 볼 수 있게 하라.
- “육감적”으로 써라.
- 가끔씩은 아내나 남편에게 “오직 당신만이 볼 수 있는 은밀한” 카드를 보내라. 분명히 성적으로 자극이 될 것이다.
-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라.
- 사랑과 헌신을 항상 표현해라. 핵심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 안심을 시켜 줄 수 있는 말로 편지를 가득 채워라.

한 유행가 가사는 “그대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가 알 수 있도록 백 가지 방법을 찾으세요.”라고 말한다. 내가 백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멋진 한 가지 방법은 알고 있다. 글로 써라, 종이 위에.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표현해라.

소울 메이트에게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을 살펴 볼 것이다.

제 5 장

성인이 된 자녀에게 편지쓰기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칭찬을 들으면 여전히 좋아한다. “저 좀 봐주세요! 제가 하는 것 좀 보세요.”와 같은 말을 하는 진짜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갈망한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 독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로부터 용기를 주는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청구서를 본인이 지불한다는 사실이 부모에게서 삶의 지혜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쨌든 당신은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삶의 교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하겠는가? 삶은 각 단계마다 도전이 있으며,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당신이 배우는 통찰력을 우리 뒤를 따르는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글을 써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개념에 관해 오래전에 들었던 옛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 남자가 물살이 센 개울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때, 한 여행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강둑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여행자가 강물을 건너기에 가장 적당한 곳을 찾을 때까지 신중하게 물살을 살펴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남자가 얼마나 대담하게 움직이는지 보았고 얼마 안 있어 그 여행자는 무사히 독 위로 올랐다. 그때 지켜보던 남자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여행자가 배낭에서 도끼를 꺼내어 커다란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호기심에 여행자에게 다가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개울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나무를 힘껏 내려찍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왜요? 이미 개울을 건너셨잖아요. 왜 이제야 다리를 만들죠?” 그 남자가 물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켜봐왔던 젊은이가 내 뒤에 오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저처럼 여행에 익숙하지 않아요. 더욱이 이 개울은 그 애가 건너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답을 들은 후 그 남자는 자신을 기다리는 다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젊은이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 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다리들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당신이 얻은 교훈을 아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면 자녀들의 심적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덜어 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평생 자녀들에게 꾸준히 편지를 써야한다. 자신들의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을 듣고 최근에 딸아이와 사위에게 쓴 한 통의 편지를 함께 나누어보자.

---

조엘과 아만다에게,

어제 삭스 (Sachse)에서 열린 교회직원회의에서 조엘, 자네를 보고 있자니 이 편지를 자네부부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 목사들, 직원들과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자네가 킬고어 (Kilgore)에서 거둔 눈부신 성공이 기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굉장히 벅차올랐네. 자네부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마 글로는 표현 못 할 거야. 너희부부가 성공적인 목회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왜냐하면 너희는 능력을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이 있으니 말이다.

자네의 목회일로 다른 교회가 이득을 얻는 것을 보고 조금 슬펐네. 자네는 이 곳 센트럴교회에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았었지. 아버지가 목사로 있지 않은 교회에서 자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여전히 믿지만 너희들의 마음과 열정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너무 너무 아쉽단다. 우리 가족이 티격태격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한단네.

하지만 나와 바바라는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세상 그 어느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조엘, 자네는 목회활동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나는 조엘 바이어스의 장인으로 소개될 날이 오리라고 확신하네. 늘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게나, 그러면 이룰 수 있는 꿈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주실 거라 믿는다.

아만다, 너는 더 이상 “귀여움쟁이”가 아니란다. 지금은 “사랑 가득한 여

인” 이지. 너의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야. 그리고 너의 미소로 방을 밝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래픽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것도 곧 세상에 드러나겠지. 그리고 너의 경력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고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한다. 아버지날 CD가 너무 마음에 들어 종종 들려다본단다.

너희들은 사랑으로 태어났고 언제나 부모의 가장 깊은 마음 한 편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아빠가.

당신의 아들, 딸들은 사랑받고 있으며 아이들이 성취한 것에 대해 존중받고 있음을 확실히 말해주는 이런 편지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미 소개된 몇몇 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개념들은 다 큰 자녀들에게 어떤 주제로 편지를 써야하는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수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편지를 써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편지를 써라.

나에게는 오십 대 초반의 친구가 있다. 하지만 성인임에도 부모님에게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설렌다고 했다. 그 친구는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 지 얘기해주었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분야에서 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새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었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머니는 내 여동생에게 내가 새로이 공들이고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해주었지. 난 동생에게 전화 할 일이 있었고 우리는 나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어. 동생은 ‘오빠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얘기해주어서 엄마는 굉장히 들떠계셔. 엄마는 오빠가 무

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 말씀해주시더라.’라는 말을 했어. 나는 동생에게 ‘어머니께서 내 생각들을 마음에 들어 하시니 오히려 내가 기쁘다.’라고 말했지. 그러고 나서 동생은 또 다른 얘기를 해주었어. ‘음, 자식들 중에서 엄마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오빠야.’라는 말을 하더라.” 친구는 바로 그 순간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는 동생이 하는 말을 무시해버렸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거야. 어머니께서 모든 자식들을 똑같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아마 이 말이 사실은 아니겠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께서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에 여전히 깊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지. 지금 나는 쉰 살이 넘었잖아. 일에서도 성공했고 명예도 얻었지만 어머니의 칭찬으로 가슴속 깊이 훈훈함을 느꼈어. 내가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즉, 자녀들은 당신에게서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진심어린 편지 즉,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표현해 줄 편지를 써라.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다. 당신이 쓴 편지는 금은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소중한 기념품이 될 것이다.

다 큰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한 한 가지 예로서, 제시카와 제시카 남편에게 결혼 전 날 썼던 편지를 수록했다.

---

사랑하는 제시카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떨리는 순간이구나! 너와 찰리에게 있어 결혼은 만남의 결실을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22년 간 네 엄마와 내가 해왔던 수많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일이다. 너로 하여금 중요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편지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분주한 일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거야.

먼저,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끔찍이도 자랑스러워하는지 다시 한 번 말할게. 네가 멋진 젊은 여성으로 자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으로서의 네 삶에 대해 이 아버지는 기대가 크다. 특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 너는 엄마의 아름다움과 다정함을 물려받았고 어쩌면 엄마보다 조금은 더 우아할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찰리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 또한 내가 알았으면 좋겠고 괜찮은 사위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결혼을 준비하는 온갖 기쁨들과 맞물려 아마도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무리 설레는 일일지라도 사람들 모두가 아직도 결혼 전에 살았던 삶과 단절되는 것을 싫어하지. 지금까지 작은 소녀였던 그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다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과 단순히 며칠 밤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마을을 떠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분명히 충격을 받을 거야. 너는 언제나 나의 딸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집으로 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독신 여성으로서 삶이 끝난 것으로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결혼한 여성의 삶으로 범위를 넓혀 보거라. 엄마와 나는 딸을 잃는다고 느끼지 않고 차라리 찰리와, 바람이지만 언젠가 태어난 손자들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우매한 사람들만이 불안해하는 마음 없이 평생의 계약을 맺지.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네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곧 하게 될 서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해라.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괜찮을 거야.

행복한 결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언을 해 볼까?

- 찰리와 말다툼을 할 경우 알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부부 싸움은 관련된 사람이 적을수록 중단다.

- 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화가 풀리지 않은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라.
- 입, 아이들 혹은 무엇 때문이든 서로를 위해 매주 시간을 내는 것에 방해받지 마라. 소홀함이 반복되면 어떠한 사랑의 감정도 지속될 수 없다.
- 가정에서는 하느님과 교회를 가장 중요시해라. 하느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 아무리 유혹을 느껴도 서로를 두고 외도를 하지마라. 배우자에 대한 신의는 깨어진 약속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이득을 가져다준다.

제시카 마리,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해왔고 네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내 삶에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고 너의 새로운 가족이 성장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앞으로 다가올 즐거운 나날들이 기대가 되는구나. 훌륭한 아이가 되어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토요일에 결혼식장 안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갈 때 아빠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너의 아빠가 되게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가득이 차오를 것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어라. 물론, 속으로는 울고 있겠지만, 아마 겉으로도 울겠지만 잠시 뿐 일거야. 사랑한다. “ 뒤죽박죽 제스 (Jess-the-Mess)”. 매일 우리 곁에 내가 없어 아쉬울 거야. 하지만 엄마와 나는 언젠가는 네가 “ 등지를 떠날 수 있도록 기렸고” 이제는 네가 “ 비상” 을 할 때야. 너는 사랑으로 잉태되었고 굉장한 기쁨으로 너를 기렸으며 자랑거리가 되었어.

사랑한다,

아빠가

제시카는 이 편지 받아 무척 좋아했고 7년 넘게 간직했다. 당신의 딸 혹은 아들 역시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편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오늘 시간을 내서 자녀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 보면 어떨까?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보낸 또 한 통의 편지를 예로 실어볼까 한다. 이 편지는 내 딸의 결혼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보냈던 것이다.

---

제시카와 찰리에게,

격식을 갖춘 듯 보이는 편지를 응서해라. 카드롤 보내고 싶었지만 가지고 있던 카드가 다 떨어졌지 뭐니. 나는 단지 너희부부 결혼 2주년을 축하하고 싶었다. 너무나 대견하다. 너희들은 정말 나이없는 딸과 사위야. 너희들은 근면하고 경제관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건한 기독교인성을 가진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결코 나이 값을 못하는 자식들을 돕느라 막대한 시간, 에너지와 돈을 쓰고 있다. 너희들은 바바라와 내가 그런 트라우마를 겪지 않게 해주어서 기쁘다.

너희들과 함께 교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 또한 기쁨이다. 우리는 너희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야. 센트럴교회를 선택해주어서 매우 기쁘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을 위해 재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으로 보람을 느낀다.

찰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관찮은 사위가 되어 주어서 고맙네. (그리고 훌륭한 사위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네.) 자네가 제시카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보는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이라네. 그리고 내 딸을 아껴주어서 고맙네. 또한 컴퓨터를 다루는 일과 건설작업에 있어 자네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덕분에 자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되기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네. 자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자네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세월들이 기대되네. 제시카, 언제나처럼 너는 아빠에게 필요한 돌도 없는 훌륭한 아이야. 어렸을 때 언더우먼 복장을 하고 집 주변을 뛰어다녔던 것을 기억하니? 삶의 모든 면에서 아주 놀라움을 주는 여성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네. 미모, 우아함, 재능 그리고 기쁨 같은 것들에서 말이야.

음, 여기서 이만 줄일게. 써야 할 설교가 있거든.

사랑한다, 그리고 결혼 2주년을 맞았다니 자랑스럽구나. 앞으로 좋은 일들이 함께 하기를 빌어본다.

사랑한다,

아빠가

아빠와 엄마들은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봐라. 어느 바쁜 젊은 여성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루를 마치고 우편함 앞에 멈춰 선다. 우편함 안으로 손을 뻗어 광고 우편물과 청구서들 틈에 묻혀있던 기쁨을 발견한다. 아빠 혹은 엄마가 보낸 손 편지이다. 편지를 열어본다, 그리고 2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이 성취한 것들에 대해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읽자니 눈물이 난다. 남편과 함께 읽으려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둘이 함께 사랑과 감사의 내용이 적힌 글을 다시 읽는다. 얼마나 많은 기쁨들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졌으며 아빠, 엄마와 얼마나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장성한 자녀들에게 오늘 편지를 써 보면 어떨까? 아이들을 축복해 줄 시간을 낸 것에 대해 매우 기쁨을 느낄 것이다.

제 6 장

유산으로 남겨질 편지

내 친구 키스는 가족한테 받은 특별한 기념품을 가지고 있다. 권총을 보관해두는 캐비닛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께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키스가 무척이나 사랑했던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 이 가구를 매우 좋아한다. 캐비닛을 만질 때마다 할아버지가 키스에게 어떤 의미였고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추억을 이어주는 끈이 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을 갖기를 바란다.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바로 그런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글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복음전도자로서 인생을 바쳐왔다. 내가 해야 할 임무중 하나가 장례식을 집전하는 것이다. 슬픔에 빠진 조문객들이 아버지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훨씬 더 안타까운 경우는 딱 한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한다. 아들, 딸 혹은 배우자에게 편지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편지는 소중한 기념품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산의 일부가 될 것이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외로운 어느 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응원한다는 아빠의 손 글씨가 적힌 용기를 주는 편지를 어느 자녀가 간직하고 싶지 않겠는가?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뤄왔던 것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편지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긴 평화와 위안을 주는 편지의 강력한 힘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유산으로서 가치를 두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성경에서 이 기술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말을 남긴다. 이 고대문서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때 따라해볼만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모세는 뭐라고 썼을까?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러 가지 도전들을 직면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돌보심과 중재하심으로 감히 모세에게 대항하는 이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였다. 하느님과 인생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적었다. 인생에서 전환

점은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터득한 진리는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이것이 훌륭한 편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아이들에게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라. 두렵고 아프고 화가 났던 시절 또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시절에 대해 아이들에게 글로 표현해주어라, 그리고 왜 그렇게 느꼈었는지 말해주어라. 열심히 일하는 법, 현명하게 일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으며 혹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말해주어라. 어떻게 사랑에 빠졌으며 어떻게 그 사랑이 결코 바래지 않을 인상을 남겼는지 말해주어라. 부모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자식을 어떻게 기를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알려주어라. 그리고 한 번 더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려주어라.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아마도 잘 알지는 못할 수도 있는 진정한 당신...진정한 아빠 혹은 엄마를 보여주어라. 이것만은 약속할 수 있다. 그러한 편지는 자손 대대로 소중한 기념품이 될 것이다.

여기에 유산으로 남을 편지에 딱 맞는 좋은 예가 있다. 고든 맥도날드(Gordon Mcdonald) 박사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의 저서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When Men Think Private Thoughts)』라는 훌륭한 책에 그 예가 나온다. 맥도날드 박사가 자신의 생각과 힘든 고통들을 손자들과 어떻게 나누었는지 눈여겨보아라.

네 할아버지는 여전히 네 할머니에게 항상 다가가고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해독할 수 없는 우리만이 아는 암호로 할머니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을 게다. 내 책을 읽거나 내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책을 쓸까, 설교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 셈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내고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분 좋은 변화들을 즐기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두 다리와 정신이 있다면 여전히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하고 있을 거야. 결국 이것이 할아버지가 가진 개인사명이야.

루카스! 라이언! 할아버지는 인생을 즐겁게 살았단다. 최근 몇 년 동안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은 나에게서 최대의 도전이었지. 할아버지가 아직도 좇고 있기도 한 달성하기 힘든 목표란다. 이 책에 묘사한 많은 남자들처럼 혼자만의 생각들로 많은 밤들을 보냈단다. 그 중 몇 가지는 털어놓기 쑥스러운 것들이야. 하지만 어떤 것들은 통찰력을 갖게 해주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단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후회되는 일보다 기쁜 일이 더 많았단다.

마지막으로, 만일 너희들이 깊은 상념에 잠겨 조용히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면 그 많은 생각들 중심에는 너희 둘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덕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 하느님의 신호를 듣기위해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을 거라는 것, 너희 세대를 위해 활기차게 봉사하고 있을 거라는 것, 너희들의 성품에 하느님의 모상을 지닐 거라는 것. 루카스! 라이언! 이제는 남자로서의 삶을 시작해라. 우리가문은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며 너희를 믿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라. 꿈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든 몸을 사리지마라. 상냥해라, 다정해라, 강해라, 현명해라, 그리고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어라. 혼자만의 생각에는 목적의식을 지니고 공적인 삶에서는 하느님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품에 속 들어올 만큼 작은아이였을 때 할아버지가 너희들 귀에 대고 속삭이곤 했던 말을 지금 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생각 중에서 최고의 것이란다.<sup>8)</sup>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향한 사랑을 어쩔 이리도 명확하게 표현했는가를 본다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 편지를 가족이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

8) McDonald, *When Men Think Private Thoughts*, Pages 245-246

또한 풀지 못한 오해나 다툼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쓸 수 있다. “미안해.” 혹은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기에 결코 늦은 법이란 없다. 비록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 사랑을 가지고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일단 누군가가 병들거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생각되는 원인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다니 재미있는 일이다.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마라. 글의 힘을 빌려 아직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해라.

개리 스몰리(Gary Smalley)는 『축복의 언어(The Blessing)』라는 훌륭한 저서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다섯 가지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의미 있는 만짐 혹은 접촉
- 축복의 메시지 (물론, 우리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스몰리 박사는 “침묵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긴가민가하며 지레짐작하게 된다.”라고 말한다. 편지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에 관해서는 “너희들을 혼내지는 않았잖아.”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즉, 우리는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사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어야 한다.
- 축복받는 이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 축복받는 이를 위해 특별한 미래를 그려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어느 부인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도 “내 아들, 변호사님!”이라고 항상 불러주었다.)
- 축복을 실현하기위한 적극적인 헌신<sup>9)</sup>

스몰리의 다섯 가지 방법은 펜을 움직여 유산이 될 편지지를 가로지르며 마음

9) Smalley, *The Blessing*, Pages 24-28

을 표현하게 도와 줄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오늘 해 보면 어떨까? 아이들이 읽었을 때 당신이 쑥스럽고 어색할 것 같으면 편지를 유언장에 넣어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하지만...글로 써라. 유산으로 남겨질 편지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신에게 알려줄 하나의 아이디어가 더 있다. 글로 쓰는 것이 그냥 싫다면 녹음기와 공 테이프를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리 내어 읽어라.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찾아라. 녹음기를 틀어라, 그리고 말을 시작하라. 이처럼 녹음된 것이 당신의 삶과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가족들에게 오래도록 기쁘고 위안이 될 것이다. 기억해라, 지금은 가족을 비난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라.

중요한 것은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가족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가족들이 궁금해 하며 당신의 무덤가에 서 있게 하지마라. 모토가 “지금 시작해라!”인 나이키 회사의 충고를 받아드려라. 시작했다는 것에 당신은 기쁨을 느낄 것이고 당신의 가족은 유산으로 남을 편지를 매우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제 7 장  
직원들에게 쓰는 편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단 사업의 규모가 커져 직원을 채용해야 할 때 사업이 어느 수준까지 성공할 것인지는 직원이나 종업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성공과 고객서비스에 집중한다면 당회사는 급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질서가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이 “퇴근할 때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때운다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직원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동기부여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손으로 직접 쓴 격려를 해주는 편지이다. 어느 월요일 아침 나의 비서인 리디아가 자신의 서류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지 생각해봐라.

---

리디아에게,

당신이 시작한 “겨려해주기 모임”에 대해 감사할 보냅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입니다! 주일날 리디아가 불렀던 노래는 교회 전체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었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신앙을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선포 내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목사 킴

관리자로서 나는,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쓸 수 있고 이를 통해 간부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아채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직원들에게 글로 표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에 관해서 간단한 조언이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었던 여러 형태의 편지와 쪽지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글의

내용이 특히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해두고 싶어 한다. 칭찬이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주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우리는 입으로 하는 모호한 “칭찬의 말”을 넘어서야 하며 우리는 직원들이 쏟은 노고와 일구어 낸 실제업무를 정말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비서 리디아에게 내가 보냈던 또 다른 글을 소개해 본다.

---

리디아에게,

CBC 시상식에서 당신이 보여준 눈부신 활약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는 덕분에 우리가 돋보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노력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해 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 킴

직원을 격려해주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내가 직원 베벌리에게 간단히 몇 자 적어 보낸 것처럼 당신이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

베벌리에게,

베벌리가 없다면 이 일을 애써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매우 훌륭한 일꾼이며 친구입니다.

목사 킴

짙막하고 다정한 글이지만 손수 쓴 글이었고, 베벌리는 이것이 내 마음을 전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았다.

직원에게 글로 남기면 좋을 때가 업무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이다. 정말로 변화를 만드는 직원이라면 요령을 피우려 하지 않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헤쳐 나간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이 회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사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을 불어넣어준다. 상사중의 한 분이 내가 했던 첫 기업연설에 즈음하여 내게 쓴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정말로 “의욕을 높여주었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다음 도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

김에게,

내가 김에 대해 얼마나 꼼꼼히 생각하는지, 김의 태도, 참여하는 자세 그리고 성품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과 김의 가족덕택에 나는 축복을 받고 또 받았습시다. 하느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해주기 위해 많은 방식으로 김을 사용하십니다. 이 곳 툰사(Tulsa)에서의 연설은 미국전역에 걸쳐 많은 용기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빌

이 카드를 써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고, 나만의 “용기 서랍장”에 그 카드를 간직하고 있다. 빌이 이 글을 적는 데는 겨우 일분이 걸렸지만 여러 달 동안 항상 내가 일할 맛이 나게 해주었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글로 적는 것과 관련해 내가 알아낸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고자 한다. 우리 센트럴침례교회에서는 간단한 기도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매주 직원들이 모여 일정을 조정하고 교회력으로 다가오는 교회행사에 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항상 기도할 시간을 갖는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교회신자들 중 누구를 위해서든 기도를 해 주며, 교회명부에 등록되어있는 적어도 열다섯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 회의가 끝나면, 비서는 다음과 같이 적힌 간단한 카드를 보낸다.

“우리직원들은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를 드렸으며 기도 중에 특별히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보살펴주시도록 당신자신을 내맡긴 것처럼 당신이 가장 깊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길 주님께 청하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카드에 일일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여 우편으로 부친다. 당신은 우리가 이 작고 몇 자 쓰지 않은 카드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반응을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 중에 이름을 거론했던 신자 한 명이 그 주에 기도카드를 받고난 후 보내왔던 답장을 실어보았다.

이 카드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알 수 있을 런지요. 저는 그 카드들을 남편에게 곧바로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허락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은 현존하시며 누군가는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는데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아직도 놀라다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기도가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저 단순하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엽서를 가지고 신자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교회에서 사용하는 기도문 카드를 보내는 것은 당신의 기업환경에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우편으로 카드를 보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카드를 경영진으로부터 받는다는 아이디어는 당신의 조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생각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가? 공동체내에서 당신을 대표하는 직원들이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 꼭 필요한 임무를 실천하는 데 있어 글의 힘을 빌려보는 것은 어떤가?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욕구는 인정받는 것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돈이나 명성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의욕을 북돋아주는 이 단순한 격언을 기억해라, “보상을 받으면 행동을 되풀이한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이 담긴 글로 보상을 해라.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겠지만 당신의 사업에 큰 이득을 안겨다 줄 것이다. 오늘 시작해라.

제 8 장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심금을 울리는 편지에 관해서라면,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이 세상은 고통스런 일투성이다. 누군가 한번은 젊은 목사인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는 날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삼십년을 보내다보니, 내가 애써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가슴앓이를 봐 왔다. 목사라는 신분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으며 고난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려왔다. 어떤 남편이 의사로부터 아내에게 생긴 종양이 자신이 바랐던 것과는 달리 양성이 아니며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어왔으며,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관 옆을 나란히 걸어갈 때는 상심해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과 상실감을 안다. 내 자신도 아버지를 잃은 고통을 알고 있으며, 생명유지 장치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낼 것인지 결정을 해야만 했던 순간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알고 있다. 또한, 괴로움을 알고 있으며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야만 할 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분명 편지, 카드 혹은 이메일로 전하는 글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친구들과 교회신자들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카드와 짧은 편지들을 70통 넘게 받았다. 그 글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카드에 원래 인쇄되어있던 아름다운 시들을 읽었을 때 그 시구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놀라기도 했지만, 각각의 카드 한 가운데 손으로 쓴 글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술술 써 내려간 글귀들은 내 친구들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내 마음속에 영원히 그것들을 간직하게 되었다.

당신 역시도 상처받는 이들의 마음이 한결 나아지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카드나 편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어느 부인이 암 투병 중에 받았던 짧은 몇 개의 편지들을 당신과 함께 읽어보고 싶다. 그 부인은 나에게 자신에게 가장 소

중한 의미를 지닌 그 편지들은 성경말씀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여기에 그 부인이 깨달은 바를 소개해본다.

“이 성경 말씀들은 내가 암 투병 중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들입니다.

- 이것은 제가 날마다 따르고자 했던 구절입니다.

이사야 41 : 10 (새 흠정역판)<sup>10</sup>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 나에게 힘을 주었던 구절들입니다.

이사야 40 : 31 (새 흠정역판)<sup>31</sup> 오직 주를 우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8:32 (새 흠정역판)<sup>32</sup>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 마지막 성경말씀은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었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할 합당한 이유로 하느님께서 나와 더불어 나의 고통을 이용하고 계심을 일깨워줍니다.

로마서 8:28 (새 흠정역판)<sup>28</sup>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 부인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 어떤 귀중한 깨달음을 우리와 나누었는지를 당신이 느끼길 바란다. 당신이 그 부인이 알려준

짧은 리스트를 당신이 마음 쓰고 있는 현재 시련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기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기를 바란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관련해 더욱 간결하지만 실용적인 핵심내용을 소개해본다.

1. 항상 마음을 나누어라. 쭈뼛거리거나 격식을 차릴 때가 아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당신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2. 적절한 말을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마라.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저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라.
3. “너의 기분이 어떤지 알아.”라는 말을 할 때는 신중해라. 당신이 같은 트라우마를 겪어보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에 반발심을 갖는다.
4. 만일 당신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다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냥 전하며 “설교하러” 들지 않는 한, 직접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괜찮다.
5. 만일 성경 말씀이 상황과 맞아 떨어지고 당신에게 신앙이 중요하다면 마음껏 그 말씀들을 참고로 사용해라.
6. 만일 기도가 당신 삶의 일부라면,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해라.
7. 누군가 사별을 했거나 슬픈 일을 겪었다는 것을 들으면 가능한 곧바로 카드나 편지를 보내라.

8. 장례식이 있고 나서 몇 달 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라.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관심은 시간이 흐르면 종종 소홀해진다. 장례식을 치르고 6주가 되면 좋은 마음으로 잘 되길 빌어주던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고 당신의 친구들은 그저 누군가를 잃어버린 현실을 감당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괴로움에 빠진 이들에게 쓴 편지를 또 하나의 예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 편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괴로워하던 친구가 나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녀의 고통은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슬픈 현실 때문에 더 커지고 있었다. 그 친구는 이 편지를 나에게 건네주었고 슬픈 시간동안에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당신이 내 친구의 소중한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그녀의 친구들이 내 친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자신의 친구들이 겪는 그들만의 고통을 존중하는지 눈여겨 보아라.

---

- 에게,

단지 너에게 몇 줄 쓰고 싶었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항상 내 생각과 기도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 너의 입장이 되어 네 기분이 어떤지 나도 느껴 보려하지만 분명 혼란스러울 거라는 상상만을 할 수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주님께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하시지만, 우리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지. 왜냐하면 우리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해주셔야 했었지만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우리는 여전히 그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하지만, 마음속으로 는 진심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 엄마 혹은 아빠가 병이 들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기분일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어. 힘들 거라는 상상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너처럼 애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게지. 너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우리의 우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항상 너의 곁에 있을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나에게 알려줘.

사랑해,

—

우리는 상처받는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다. 우리주변에 있는 고통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며 회의감을 갖는다. 펜을 들어 글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상심한 영혼의 기분을 한껏 높여주며,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주면 어떨까? 손으로 쓴 짧은 글이나 편지는 종종 “소중한 기념품”이 되며, 이것은 결코 힘든 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 보다 결코 더 진실할 수 없다. 폐배의 아픔을 겪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사람을 알고 있는가? 오늘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면 어떨까?

제 9 장  
또 한 가지 시도

앞 서 나온 여덟 개의 장을 다루면서, 나는 당신에게 손에 펜을 쥐거나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 보라고 권해왔다. 이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할 마지막 설득을 하고 싶다. 바비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아이에 대해 말을 해 보겠다.

바비는 좀처럼 지칠 줄 모르고 스스로 통제가 거의 안 되는 어린아이였다. 그 아이가 고집이 세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어린이였을 때 부모님을 진 빠지게 했다. 바비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바비가 가만히 앉아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는 아이였다. 바비는 어느 인기코미디언이 밋상인 아이를 비꼬았을 때 언급했었던 그런 아이였다. “어떤 동물은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는 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그런 아이라는 거죠.” 좀 심한 표현이기도 하며 물론, 과장되기도 하였다. 바비는 악의가 있는 아이는 아이였지만 다루기 힘든 아이였다. 이제 내 얘기를 해보겠다. 우리교회의 목사로서, 언제나 모든 신자들에게 내가 직접 서명한 생일카드를 보내고, 그 카드에는 항상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내 앞에 놓인 바비에게 보낼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카드를 마주했을 때 뭐라고 써야 할 지 몰랐다. 단지 마음 가는 대로 아마도 하늘에서 보내는 암시라고 생각하며 “생일을 축하한다. 바비. 나는 네가 아주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한단다.”라고 쓰고는 “목사”라고 서명을 했다.

다음 주일날 아침, 오전 예배를 위해 성전으로 가고 있을 때 생일을 맞은 그 아이가 교회건물 입구 가까이 서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바비에게 다가가자, 바비는 불쑥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었다. “목사님, 제 생일카드에 저에 대해 쓴 것 말인데요, 제가 괜찮은 아이라는 말씀이지요?” 나는 이 상황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흔치않은 순간임을 느끼며 “물론이지, 바비. 너는 아주 훌륭한 아이야!”라고 말하며 바비의 머리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바비는 씩 웃어 보이며 “와!”라고 말한 뒤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예배를 집전했고 다음 주일날 아침 강당 출입문 옆 같은 장소에 바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예기치 않게 우리가 만났었던 일을 잊고 있었다. 바비는 나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며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말하고는 팔짝팔짝 뛰었다.

결말은 이랬다. 다음 해 내내, 바비는 주일날마다 비가 오나 날이 좋거나 항상 같은 장소에서 인사를 건네고 악수하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바비와 친구가 되었고 그 어린 남자아이가 변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 카드에 쓴 단순한 몇 마디로 일어난 것이었다. 내가 해준 짧은 칭찬에 대한 바비의 강력한 반응으로 나는 예전에 바비에게 칭찬을 해주었던 사람이 있었나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짝막한 글이 힘들어하는 어린 소년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평생가도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 바비의 인생을 바꾸어놓았다.

오늘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시작해보이 어떤가? 펜을 들어 종이 한 장을 손에 쥐어 쓰기 시작하라. 이런 말들로 시작해라.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런 다음 잉크를 적셔 종이위에다 사람들이 평생 간직할 소중한 기념품이 될 글을 써라. 오늘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만 소홀했던 사람에게 쪽지를 써보면 어떨까? 인생에 행운이 있길 바라며, 나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Dunn, David. *Try Giving Yourself Away*, I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47
2. Hample, Stuart, and Marshall, Eric. *Children's Letters to God*, New York: Workman Publishing, 1991
3. Harley, William. *His needs, Her Needs*. Grand Rapids Michigan: Fleming H. Revell, 1986
4. Havighurst, Dr. Robert.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Publishers, 1972
5. Mcdonald, Dr. Gordon. *When Men Think Private Thoughts*,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Publishing, 1996
6. Meir, Paul, and Minirith, Frank. *Introduction to Christian Psychology— Adolescent Development*,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82
7. Piaget, Jean. *Six Psychological Studies*. New York: Random, 1967

8. Smalley, Gary. *The Blessing*,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Publishing, 1986
  
9. Smith, *You and Your Networks*, Waco, Texas: Word Publishing, 1984